

“강인한 여성 연기, 단단해진 기분”

“몇 년간 강인한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단단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의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하.”

오는 26일 개봉하는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 ‘해적: 도깨비깃발’에서 단주 해랑역을 맡은 배우 한효주는 최근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탁월한 무술 실력을 겸비한 해랑은 남자 선원들을 이끌고 보물을 찾아 나서는 인물이다. 퓨전 사극이기는 하지만 여말선초의 시대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 캐릭터다.

‘동이’, ‘공해, 왕이 된 남자’, ‘뷰티 인사이드’ 등에서 단아하고 청초한 역할을 소화한 그는 최근 몇 년 동안은 ‘해피니스’, ‘트레드스톤’을 통해 잇따라 걸크러시 매력을 보여줬다.

한효주는 기존의 청순한 이미지를 탈피한 것이 “너무너무 좋다”며 웃었다.

“특히 ‘뷰티 인사이드’의 홍이수를 정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영화 팬이라고 하시면서 다가오면 팬스레 저도 모르게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고 또 부담도 있었어요. ‘해적’으로 기존 이미지를 깰 수 있게 돼서 좋네요.”

미국 드라마 ‘트레드스톤’에서 액션을 선보이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첫 검술 연기에 도전하며 이미지 변신을 제대로 했

한효주 영화 ‘해적: 도깨비깃발’ 단주 해랑역

첫 검술 액션 “청순 캐릭터 깰 수 있어 좋아”



영화 ‘해적: 도깨비깃발’ 속 한효주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다. 검을 휘두르는 법을 익히는 것을 시작으로 석 달간 훈련에 매진했다.

한효주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또 재밌는 게 액션”이라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기는 해도 촬영이 끝나면 느끼는 쾌감이 아픈 것을 이겨낸다”고 했다.

맡은 역이 해적이다 보니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중 촬영도 또 다른 어려움이었다. 한 번 촬영을 끝내고 나면 다음 날 아침까지 코와 귀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어떤 날은 영화 25℃까지 떨어진 상황

에서 야외 촬영을 강행했고, 폭설이 내려 몇 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촬영이 취소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기온을 검색했더니 눈을 의심할 만한 숫자가 나오더라”며 “머리에 물을 적시면 촬영하기도 전에 얼어서 살얼음이 떨어졌다”고 회상했다.

“촬영이 취소된 날 배우 중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짜증이 날 법도 한 상황이었는데도요. 오히려 다 같이 눈싸움을 거하게 한판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함께 보물을 찾아 나서는 동료이자 의적단 두목 무치를 연기한 강하늘을 두고 “워낙 배려가 많은 친구”라며 “다쳐도 안쓰러울 정도로 표현을 안 했다. 좋은 배우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칭찬했다.

한효주는 전작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1편인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전국에서 약 866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1편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아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인물과 스토리로 전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로베이스에서 캐릭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어요. 기대하고 계실 분들에게 실망 안게드리지 않을 영화, 캐릭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무대 누비는 ‘현역’ 원로배우들

오영수 연극 ‘라스트 세션’ 프로이트 연기

박정자 “90세 될 때까지 뮤지컬 할 것”



배우 오영수 /파크컴퍼니 제공

한국인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오영수(78)가 팔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극 ‘라스트 세션’에 출연해 화제다.

오영수뿐만 아니라 다른 원로 배우들 역시 비교적 작업 환경과 수입이 좋은 드라마나 영화 대신 무대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구(86)는 ‘라스트 세션’에서 프로이트 역으로 오영수와 함께 더블 캐스팅됐다.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한 1939도를 배경으로 정신분석의 대가 지크문트 프로이트와 ‘나니아 연대기’ 작가이자 영문학자인 C.S. 루이스가 만나 논쟁을 벌인다는 상상에 기반한 2인극이다.

지난달 폐막한 연극 ‘리어왕’에서는 역대 최고령인 88세의 이순재가 리어왕으로 분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이 작품은 오만과 분노에 눈이 가려져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연로한 왕의 어리석음을 그렸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공연계 ‘대모’라 불리는 박정자(80)가 활약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빌리 엘리어트’에서 발레리노를 꿈꾸는 탄광촌 소년 빌리의 할머니를 연기하고 있다.

그는 “아흔 살이 될 때까지 뮤지컬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여기 계신 프로듀서님들, 연제든지 불러달라”고 말하며 식지 않은 열정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스파이더맨’ 5주 연속 정상

신작 힘 못써… 관객 수 하락세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이 새로 개봉한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 거장들의 작품들을 제치고 5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은 지난 주말 사흘(14~16일) 동안 17만 1,000여명(매출액 점유율 24.8%)의 관객을 모으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5일 개봉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흥행 기록을 경신해 온 ‘스파이더맨’은 전일까지 누적 관객 689만7,000여명을 기록했다. 박소담이 단독 주연한 액션 영화 ‘특송’이 16만명(22.1%)으로 2위에 올랐다. 지난 12일 개봉한 ‘특

송’은 사흘 동안 일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지만, 주말 관객 수에서 밀리며 ‘스파이더맨’에 정상을 내줬다. 누적 관객은 23만3,000여명이다.

‘특송’과 함께 개봉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4만2,000여명(6.4%), ‘하우스 오브 구찌’는 4만1,000여명(6%)의 관객을 모아 나란히 5~6위에 올랐다.

지난 주말 극장을 찾은 관객은 71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극장 관객은 ‘스파이더맨’ 개봉 첫 주말인 지난달 셋째 주(12월 17~19일) 183만2,000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76만8,000여명으로 떨어졌고, 이달 들어 109만6,000여명, 87만명, 71만 1,000여명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라비 내달 25~27일 단독 콘서트

2년 3개월 만에 대면 공연

가수 라비가 다음 달 단독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직접 만난다.

17일 소속사 그루블린에 따르면 라비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22 라비 콘서트 - 르브아(REVOIR)’ 콘서트를 연다.

대면 공연은 2019년 미니 3집 ‘리미트리스’ (LIMITLESS) 발매를 기념하며

팬들과 진행한 파티 이후 약 2년 3개월만이다.

소속사는 “콘서트 이름인 ‘르브아’는 ‘다시 만나다’는 뜻으로 라비와 팬들의 의미 있는 재회에 기대가 크다”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와 퍼포먼스로 역대급 공연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2년 보이그룹 빅스의 메인 래퍼로 데뷔한 라비는 자작곡을 다수 발표하며 솔로로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쳐 왔다. /연합뉴스

“복잡미묘한 관계 풀어낸 게 ‘킹메이커’의 힘”

이선균, 김대중 전 대통령 선거 참모 연기

영화 ‘킹메이커’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선거 참모였던 엄창복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김 전 대통령은 누구나 아는 인물이지만, 엄창복에 대해서는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다. 당시를 기록한 책들에 짧게 등장하는 엄창복은 ‘선거판의 여우’, ‘흑색선전의 귀재’로 묘사된다.

엄창복을 모티브로 한 서창대를 연기한 배우 이선균은 최근 온라인 인터뷰에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를 찾았는데 왜 정작 스스로 중심에 서지 못하고 그림자로 지내야 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고 했다.

그는 남과 북이 극한으로 대치하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서창대가 이북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답을 찾았다.

약방을 운영하던 서창대는 처음 김운범(설경구 분)에게 자신을 써달라고 접근하면서 ‘이북 사투리도 싸 고쳤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이북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건 어찌지 못한 다.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워낙 정보나 기록이 없어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상상해서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는 부담이 덜하기도 했죠. 서창대가 계략과 술수를 쓰는 상황은 이미 시나리오에 잘 표현돼 있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르면 됐어요.

처음엔 사투리를 쓰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조금씩 나오면 좋겠다고 감독에게 의견을 냈죠. 출생의 한계라는 약점을 드러내야 그가 그림자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일 것 같았어요.”

영화는 코로나19로 개봉이 미뤄지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보이게 됐다. 이선균에게는 첫 정치 드라마이기도 하다.

이선균은 “대선이 코앞이라 일부 우려도 있는 것 같지만 정치색을 띤 영화는 아니다”라며 “치열한 선거판 안에서의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시나리오를 봤을 때 1960~1970년대 선거 이야기, 두 인물의 신념과 갈등이 재밌었어요. 선택의 이유는 무엇보다 ‘불한당’의 변성현 감독, 설경구와 함께한다는 게 컸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작품이었죠.”

그는 “누아르 범접 영화는 많지만 ‘불한당’은 스타일 면에서 독특하고 인물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섬세하게 표현된다”며 “그게 ‘불한당’의 힘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한국은 물론 세계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기생충’ 이후 극장에서 선보이는 첫 작품이기도 하다. 이선균은 “부담은 내 몫이 아닌 것 같고, 감사함만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 작품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너



배우 이선균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제공

무 큰 행운이고 영광이죠. 하지만 그 끈을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영화사 100년에 방점을 찍으면서 또 다른 시작을 만들었잖아요.”

이선균은 ‘기생충’ 팀이 수상했던 미국 배우조합상(SAG) 앙상블상 후보에 오른 ‘오징어 게임’ 팀에 축하 인사와 함께 “굉장히 좋은 샴페인이 많다. 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적당히 즐기시라”고 재치

있는 팁을 전하기도 했다.

“처음 해 본 장르의 영화들이 또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서 어떻게 봐주실까 기대가 돼요.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역할보다는, ‘나한테 이걸 왜 줬지?’ 싶고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과 역할을 더 만나 보고 싶어요. 고민하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그러면서 성장하겠죠. 잘 늙어가면서 나이에 맞는 역할이면 좋겠네요.”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원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18일 (음력 12월 16일)	
 子	48년생 하늘이 내편이니 두려울 것이 없다. 60년생 재물 손실이 있겠다. 72년생 웬지 신경 쓰이고 불편한 날이다. 84년생 속상해도 참는 것이 이익이다.	 丑	49년생 조용히 실속만 챙겨라. 61년생 혼란스럽다면 결정은 내일로 미뤄라. 73년생 술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 85년생 분수를 지키면 낭패가 없다.	 寅	50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62년생 친구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74년생 합리적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지 말라. 86년생 뿌린 만큼의 결실을 맛본다.
 辰	52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64년생 위기가 가면 기회가 찾아온다. 76년생 소리를 따르면 막힘이 없다. 88년생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巳	41년생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온다. 53년생 작은 일이 나중에 큰 낭패를 부른다. 65년생 먼저 나서면 손해를 본다. 77년생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午	42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54년생 동산에서 봉황이 날아오르는 길일이다. 66년생 동서남북 운이 활짝 열렸다. 78년생 뜻밖의 술과 고기가 생긴다.
 申	44년생 최고의 상책은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이다. 56년생 지성이면 감천이다. 68년생 먼저 제안하여 협상을 주도하라. 80년생 타인의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말라.	 酉	45년생 절대 이웃과 다투지 말라. 57년생 처음에는 힘들어도 곧 상생세를 타겠다. 69년생 무엇을 해도 잘된다. 81년생 직장상사와 오늘날은 절대 다투지 말라.	 戌	46년생 답답했던 마음이 땀 뚫린다. 58년생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 70년생 시간이 충분히 흘러야 해결된다. 82년생 마음만 바쁘고 진척이 없다.
				 亥	47년생 유능한 친구의 도움이 있겠다. 59년생 신용을 얻고 승승장구한다. 71년생 기본 소식이 있겠다. 83년생 행운이 발동하니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